



한덕수 국무총리, 「클라우스 슈밥」 세계경제포럼 회장 접견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9일(목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「클라우스 슈밥(Klaus Schwab)」 세계경제포럼(WEF) 회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 - ※ 슈밥 회장은 중국 텐진에서 개최되는 2023 하계 다보스(6.27-29) 참석 계기 방한
- 한 총리는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WEF의 역할을 평가하고, ‘글로벌 중추국가(Global Pivotal State, GPS)’로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.
 - 슈밥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 확대 및 민관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, WEF측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, WEF측의 주요 사업과 행사 계획 등을 소개하였다.
- 한 총리와 슈밥 회장은 AI,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의 발전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민관 차원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.
- 한편, 한 총리와 슈밥 회장은 한반도 정세 등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박영철	044-200-2136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이채영	044-200-2139